

명태를 둘러싼 日·韓관계*

加藤 辰夫**

Alaska Pollack Trade Rel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Tatsuo Katou

< 목 차 >

I. 서론	IV. 수입선어의 급증이 한국시장에 미친 영향
II. 세계화 속에서의 명태어업	V. 선어명태를 둘러싼 일한 관계
III. 한국에 있어서 명태의 유통과 소비	참고문헌

I. 서론

본 연구는 명태를 사례로 200해리 체제와 WTO 등의 세계적인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한일 양국의 수급사정의 변화와 그 요인, 명태수입국인 한국시장의 유통 실태, 일본산 명태에 대한 한국시장의 평가와 문제점 등을 밝힘으로써 향후의 한일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국제화 속에서의 명태어업, 둘째로, 한국의 유통실태, 셋째, 수입선어의 급증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넷째, 명태선어를 둘러싼 한일 관계로 되어 있다. 실태 분석은 한국의 명태수급과 유통을 중심으로 하며, 수출측인 일본의 유통실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사항에 한정하였다. 또 명태무역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고찰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II. 세계화 속에서 명태어업

세계의 주요나라들이 200해리 체제를 선언한지 4반세기가 지났으며, 한국과 일본간에는 그 과정에서 어장 분쟁이 끈임 없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양국간에 新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200해리 체제하의 한일관계가 출발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명태어업도 원양어장의 축소와 자원악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태

* 본 논문은 2001년 12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 공동심포지움('21세기의 수산업 : 한일의 현상과 장래의 선택')에서 발표된 것임. 저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측 실태조사에 협력해 준 여수대학교 강연실 교수, 수협중앙회 이광남 연구원을 위시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 福井縣立大學 教授

평양어장의 자원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식용자원인 대형사이즈의 자원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한편, 일본경제의 불황으로 수산물의 시장가격도 저가격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경영의 회복은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산 명태의 한국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일본측은 단가가 높은 식용명태의 수출이 어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명태를 어획하는 주요어업인 저인망어업의 경영수지는 어획량과 가격수준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양륙금액이 1할 정도 회복이 되면 경영개선에 큰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²⁾.

일본의 어획량은 1985년에 약150만톤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약34만톤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30만톤대의 수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인망과 자망, 연승 등의 어업 중에서 특히 원양저인망어업의 어획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근해저인망의 어획은 원양저인망 만큼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해저인망어업의 어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1995년 이후에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 국내시장에 선어를 출하하였던 어업은 연승과 자망이었으며, 저인망이 선어를 출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일본의 저인망에서 어획된 명태의 대부분은 어묵용의 가공원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1마리 500g 정비교적 대형 사이즈의 명태를 선상에서 선별하여 선어로 출하하고 있다³⁾.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명태의 생산국임과 동시에 소비국이다. <표 1>과 <표 2>는 각각 한국 연근해어업의 명태어획량과 원양명태어획량으로 한국측의 명태공급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1990년 이후 명태의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고 1995년의 7,000톤에서 1999년에는 1,400톤으로 약 2할 수준까지 급감했다. 명태의 주 어장은 한국연안의 동해로 주요어법은 유자망과 연승이며,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동해의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어획금액은 25%수준이지만 금액은 127%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연안명태어업은 10년 전까지 동해에 면한 북한과 가까운 고성, 속초에서 성행했다. 양 지역의 수협 산지시장에서 취급된 명태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으며 단가는 10년전과 비교해 4~5배 상승하고 있다.

- 1) 일본주변의 명태어장은 북부 일본해, 오토츠크해, 태평양이며, 한반도 및 일본해 서부 연안의 명태어군과는 다른 계군이라고 한다. 각각의 계군별로 산란장이 있고, 산란기에 연안에 회유하기 때문에, 연안에서도 대형명태가 어획 된다. 일본해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태평양어장의 어획량은 안정되고 있어 비교적 대형명태의 어획이 증가하고 있다. 대형 사이즈의 어획비율 증대는 자원증대에 의한 것으로, 특정연도에 자연발생한 군(탁월연급군)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저인망어업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대량어획을 하는 어선어업이기 때문에 자원회복이나 단가의 상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영수익의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加藤辰夫·松下泰山, (1997) 참조.
- 3) 일본산 명태에서 용도별 점유율이 큰 가공원재료(스리미=고기풀)의 경우, 산지 평균가격이 kg당 30~40엔에 불과한 가격으로서 선어가격의 약 10분의 1이다. 저인망어업의 경영은 선어출하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용도별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어로 출하할 수 있는 것은 사이즈가 크고 선도가 좋은 것으로 한정되며, 선별과 수송에 드는 비용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근해·연안어업에 의한 명태 어획량

	년 도	1990	95	96	97	98	99	2000
어 획 량 (톤)	합 계	9,798	6,903	4,445	6,373	6,232	1,392	766
	비 계 통	112	378	383	144	30	9	
	중형기선저인망	2,154	307	302	344	234	83	14
	유 자 망	4,085	3,635	2,076	2,948	2,597	712	614
	연 승	1,867	2,061	1,362	847	2,410	474	95
	동 해 구 트 롤 기 타	1,495	869	556	531	343	32	15
		197	31	149	1,703	648	91	28
금 액 (백만원)	합 계	8,812	19,626	16,211	16,654	12,251	5,024	358
	비 계 통	101	1,080	1,375	363	59	32	
	중형기선저인망	1,933	877	1,084	867	460	300	6
	유 자 망	3,666	10,382	7,453	7,430	5,105	2,570	287
	연 승	1,675	5,886	4,890	2,135	4,738	1,711	47
	동 해 구 트 롤 기 타	1,342	2,482	1,996	1,338	674	115	5
		177	89	535	4,292	1,274	328	13
가 격 (원/kg)	합 계	899	2,843	3,647	2,613	1,966	3,609	467
	비 계 통	902	2,857	3,590	2,521	1,967	3,556	
지 수 (1995=100)	어 획 량	141.9	100.0	64.4	92.3	90.3	20.2	11.1
	금 액	44.9	100.0	82.6	84.9	62.4	25.6	1.8
	단 6가	31.6	100.0	128.3	91.9	69.1	127.0	16.4

주 : 금액은 전국의 위탁판매단가에서 산출, 원양은 제외됨.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한국의 원양어업에 의한 명태어획량도 199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1999년의 한국농림수산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원양어업에 있어서 전 어종의 어획량은 약 80만톤이고 그 중 명태는 14만톤을 점하는 주요어종이다. 주요어장은 북양어장과 북해도 근해어장이었지만 북양어장은 1995년의 2만7천톤에서 1999년의 12만톤으로 5할 정도 감소했고, 북해도 어장은 1998년에 급증했으나 1995년의 6만톤에서 1999년의 2만톤으로 7할 정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원양어획량의 감소는 미국 및 러시아의 200해리 어장으로부터의 철회, 북해도 근해어장을 둘러싼 어업분쟁의 결과로 어획할당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일찍이 일본의 원양어업이 축소하게 된 사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근해와 원양명태어획량을 보면 원양어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원양명태는 냉동품이며 연근해 명태는 선어형태의 출하가 중심이다. 따라서 가격 및 유통경로도 다르다. 한국의 명태수급(1999년)과 용도는 ①연근해 어획량은 불과 1,392톤으로 시장의유통이 중심이며, ②원양어획량은 14만 5천톤으로 거의 전량이 가공품으로 이용되며, ③수출량은 11만 6천톤으로 이 중 냉동품이 6만톤, 명태 연육이 2만 4천톤, 선어가 6천톤이다.

<표 2> 한국의 원양명태어업

	1990	95	96	97	98	99	2000
합계 (톤)	311,703	336,810	218,753	215,814	230,143	145,720	86,066
북양트롤(a)	308,689	274,482	173,954	168,482	138,556	126,053	85,420
북해도트롤(b)		62,251	44,538	47,300	91,490	19,465	646
기타	3,014	87	216	32	97	202	0
지수(a) 1995=100	112.5	100.0	63.4	61.4	50.5	45.9	31.1
지수(b)		100.0	71.5	76.0	147.0	31.3	1.0

주 : 1990년의 구분은 1995년 이후와 다르며, 북해도 구별이 되어있지 않음.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III. 한국에 있어서 명태의 유통과 소비

한국에 있어서 명태의 유통은 수요의 확대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유통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은 명태의 전통적인 생산국임과 동시에 소비국이기도 하며 소비의 실태는 일본과 비슷하고 선어형태의 소비와 함께 다양한 가공품으로도 소비되고 있다. 가공품의 소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명태연육제품이 많은데 비하여 한국은 건제품의 소비가 많다.

1999년의 가공품 생산량은 19만톤(이 중 원양가공품 생산량은 14만톤)이며 국내 어획량의 감소에 의해 러시아 및 북한⁴⁾ 등으로부터의 수입명태를 이용한 국내의 가공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입품이 한국의 산간지 공장에서 건제품 등으로 가공되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명태의 선어형태로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지시장에의 출하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 시장에서 부족한 국거리용, 김치 등에 이용되는 선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산 선어명태가 수입되게 되었다.

서울시 최대의 생선식료품 도매시장인 가락동시장에서는 수산물 도매법인이 2사가 있고 그 중 하나가 K수산이다. K수산은 1999년도에 취급량이 10만2천톤(매출고는 1,860억원)으로 일본의 도매법인과 비교해도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에서 일본산 선어명태의 입하량은 2000년 11월 현재 1일당 700~800상자(10kg)이며, 서울서부의 노량진 시장에서는 1,000~1,200상자, 북부구리시장에서도 1,000상자정도 입하되고 있으며 선어명태가 다른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일본산 명태는 소매점에서 일본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일본산은 단기간에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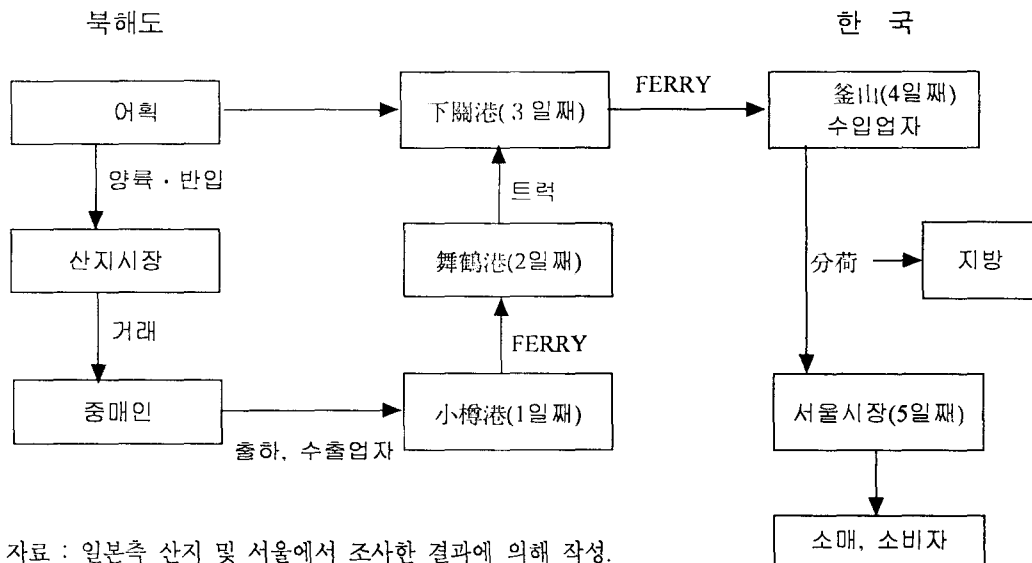
가락동시장에서 선어명태의 상장은 2000년 가을에 상승해 일본산 연승몰의 경우에 한

4) 현지조사에 의하면 북한산 선어는 품질에 문제가 있고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선어입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소비지 시장에서는 선어에 관해서 일본과 경합하는 산지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명태의 수입이 증가했다. 한국 원양 트롤어업과 러시아산 명태, 그 외의 수입물은 냉동품이고 선어명태와는 용도, 가격 면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상자당 7만원, 일본산 저인망물의 경우에 3만 5천에서 4만원이며 일일 입하량에 따라 상자당 1만원정도 변동한다. 2000년 가을의 일본산 선어의 가격수준은 1999년에 비해 3할 정도 상승했으며, 외화 환산한 일본국내 가격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 있어 아주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 도매가격이 2배정도 올랐고 명태가격도 고수준이다⁵⁾.

일본산 선어명태의 유통경로는 북해도에서 어획하고 3일 후, Simonoseki에 도착해 부산까지 3일, 서울에는 5일째 도착한다. 북해도 산지에서 냉동컨테이너로 출하된 선어명태는 Otaru에서 일본해측의 Maizuru까지 페리로 운반돼 Simonoseki 또는 Hukuoka 까지 트럭으로 수송된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도관리가 중요하며, 선도면에서는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가락동 시장에서 일본산 선어를 수입하는 업자는 5사가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업자는 일본에서 직접 매입해서 컨테이너 운반으로 수입한 후 부산에서 한국 각지로 배분하고 영세업자는 시장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자료 : 일본측 산지 및 서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 작성.

<그림 1> 일본산 선어명태의 유통경로

1999년도는 취급업자가 20社 정도 있었으나 2000년도는 전년과 비교해 비교적 규모가 큰 업자에게 집약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업자 중 D수산은 연간 명태 취급액이 15억

5) 한국경제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0년부터 10년간 60%상승, 어개류는 140% 상승했다. 1990년대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도매가격도 최근 5년간 2배로 상승하였다. 수산물 가격의 상승에는 어획물 감소에 의한 전체적인 국내공급 부족, 한국 외화가치하락에 의한 수입가격 상승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이며 선어를 일본에서 냉동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북해도 각지에서 여러 어법의 명태를 구입하고 있다. 이 중 Kusiro산은 저인망어업에 의해 어획되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 가격이 비교적 낮으나 출하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력한 산지로 평가된다. Kusiro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사를 경유하고 있지만 Kusiro에서 경매로 구입할 경우 지정가격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매취구입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⁶⁾.

IV. 수입선어의 급증이 한국시장에 미친 영향

일본산 선어의 급증이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가락동시장의 도매법인 K사의 상품규격별 사이즈별 거래를 중점으로 검토하고자 한다<표3>. 상품의 규격은 냉동물, 연승, 자망, 수입선어로 구분되고 사이즈별로도 구분되고 있으며 일본산은 수입선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물의 일부에도 포함되어 있다.

(1) 1999년의 서울시 가락동시장의 K수산은 명태 취급량이 6,435톤, 취급액이 94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원양어업에 의한 냉동물과 국산연승, 자망에 의한 것, 수입선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 전체의 수량 중 냉동물이 7할을 점하고 수입선어가 15%, 자망은 1할, 연승의 취급량은 적었다. 금액으로서는 냉동물이 6할인데 비해 수입선어가 25%이다.

(2) 냉동물의 규격은 대형사이즈4에서 소형사이즈8, 필렛 중 비교적 소형사이즈7과 사이즈8이 가장 많고 자망도 소형사이즈의 비율이 높다. 규격별 평균가격은 필렛을 제외한 냉동물이 kg당 1,000원, 필렛은 2,460원, 연승은 대형사이즈가 4,000원(평균3,000원), 자망은 대형사이즈가 3,000원(평균1,600원)이며, 이에 비해 수입산의 평균가격은 2,400원이었다. 평균가격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연승, 수입선어, 자망, 냉동물 순이며, 이것은 시장에 있어서 품질평가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다.

(3) 수입선어의 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1999년의 1월에서 10월까지와 2000년의 동기간을 비교하면 수입선어의 수량이 5배 금액도 5배 정도이며 냉동물은 수량이 115%, 금액이 107%로 수입선어와 비교하면 적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승은 1할, 자망은 3할로 급감하고 있다. 한편, 총계는 수량이 127%,금액이 137%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선어의 증가는 한국의 명태시장 확대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6) D수산은 일본에 있어서 지명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일본측 상사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높으며 상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표 3> 서울시 가락동시장 K수산의 명태 규격별 size별 취급고(1999년)

규격		수량 (kg)	구성비 (%)	금액 (천원)	구성비 (%)	평균단가 (원/kg)	수량증감 (%)	금액증감 (%)	단가증감 (%)
냉동물	size4	209,520	3.3	224,440	2.4	1,071.2	86.5	76.2	88.1
	size5	173,980	2.7	223,232	2.4	1,283.1	109.3	95.2	87.1
	size6	560,030	8.7	722,797	7.7	1,290.6	337.4	303.4	89.9
	size7	1,390,588	21.6	1,861,662	19.8	1,338.8	90.3	80.4	89.0
	size8	1,865,724	29.0	2,067,889	22.0	1,108.4	43.3	45.5	105.1
	필렛	66,762	1.0	164,271	1.7	2,460.5	151.8	141.6	93.3
	기타	445,192	6.9	410,267	4.4	921.6	345.5	335.8	97.2
	소계	4,711,796	73.2	5,674,558	60.3	1,204.3	115.1	107.1	93.0
연승	대	6,900	0.1	28,178	0.3	4,083.8	3.0	1.6	53.3
	중	49,250	0.8	174,882	1.9	3,550.9	15.6	14.2	91.0
	소	46,078	0.7	111,647	1.2	2,423.0	8.3	9.0	108.4
	소계	102,228	1.6	314,707	3.3	3,078.5	11.4	11.2	98.2
자망	대	35,902	0.6	113,838	1.2	3,170.8	16.0	12.2	76.3
	중	104,416	1.6	261,537	2.8	2,504.8	44.7	41.7	93.3
	소	472,618	7.3	613,318	6.5	1,297.7	27.6	45.7	165.6
	소계	612,936	9.5	988,693	10.5	1,613.0	29.9	40.6	136.0
선어수입		1,008,980	15.7	2,437,068	25.9	2,415.4	503.2	478.7	95.1
총합계		6,435,940	100.0	9,415,026	100.0	1,462.9	127.7	137.0	107.3

주 : 증감율을 뺀 각 수치는 1999년 1년간의 합계 또는 구성비임.

증감비율은 1999년 1~10월 합계에 대한 2000년도 동기간의 비율.

냉동물의 size는 size4가 최대, size8이 최소임.

자료 : 강동수산주식회사, 가락동시장.

(4) 급증한 같은 기간에 연승과 자망의 취급이 급감한 것은 수입선어와의 경합에 의한 것은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격의 변화를 보면 연승의 가격은 변동이 없고 자망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선어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수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 기간의 수량감소는 국내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수입선어는 국내산의 대체물로서 소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산지의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5) 수입선어가 증가한 것은 한국산 연승, 자망에 의한 선어출하용 명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일본산 명태는 한국내의 연승, 자망에 대해 가격과 사이즈(대형)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999년부터는 냉동명태도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금후 일본산 명태의 급증이 한국내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킨다고 볼 수 없다.

(6) 앞으로 수입품의 증대에 의해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원리로 생각하면 소비자

에게 이익이 되지만 동시에 한국의 명태생산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내의 생산자 단체 일부에서는 이것을 우려하여 수입급증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V. 선어명태를 둘러싼 한·일 관계

선어명태를 둘러싼 한·일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역사적 배경에 거슬러 올라가 정리하고, 연육을 포함한 명태무역 전체 중에 선어명태의 무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어명태의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배경에는 어장이용질서의 국제적 전환과 한·일 양국의 선어경합이 있으며, 게다가 앞으로의 무역에서는 WTO체제하의 국제적인 무역질서로서 자유무역체제하의 세이프가드제도 적용이 문제가 된다. 세이프가드제도는 영속적인 무역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수입의 증가에 대해 긴급 피난적인 대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의의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장기에 걸친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상대국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입국의 국내사정에도 좌우될 것이다⁷⁾.

WTO체제는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맹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이상으로 계속적인 강력한 수입제한을 행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수입제한을 행하고 있던 많은 품목에 관해서 그 철폐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내 생산의 지속이 중요한 농림수산물에 있어서 수입제한이 필요 불가결하다면 앞으로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 무역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역에 관한 양국 간의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WTO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국간의 특정품목에 무역제한을 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⁸⁾. 현재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품목에 있어서 무역제한은 세이프가드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반덤핑 과세를 명목으로 실질상 수입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7) WTO체제는 구미 주도 하에 성립된 것이지만 시장원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WTO체제하의 세이프가드제도는 자유무역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자체만을 평가하면 불안정한 국제무역을 안정시킨다는 효과를 가지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긴급 수단으로서 무역제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이프가드 운용에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영속적인 무역제한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국이 규정을 서로 인정해 규정의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며 규칙 없는 무역제한 및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8) 국제적인 지역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예가 있고, 최근에는 2국간의 자유무역협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자유무역이 초래하는 부의 영향에 대해서 상대국간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자유화하지 않는 부분 내지 특별한 규정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단, WTO체제는 원칙적으로 무역제한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특히 제3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러한 시도는 곤란이 예상된다.

대국의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행위이며 국제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세계의 명태무역에 있어서 일본에서 한국에의 명태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해 두고자 한다. 각국에서 한국에의 수입량(가공품 제외)을 보면 선어에 있어서 일본의 급증, 냉동품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점유율이 높다<표 4>.

<표 4> 명태의 국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1997		1998		1999		2000	
		수입량 (톤)	수입금액 (\$/kg)	수입량 (톤)	수입금액 (\$/kg)	수입량 (톤)	수입금액 (\$/kg)	수입량 (톤)	수입금액 (\$/kg)
선어	일본	5.4	5.93	84.8	2.70	5,639	1.72	11,814	2.01
	미국	0.9	3.56	1.1	2.55	0.9	2.56		
	러시아			22.8	0.30	78.9	0.30	52	0.54
	기타	0		0.1	4.00	0.2	8.50	9	0.67
냉동	러시아	34,853	0.51	17,984	0.48	56,550	0.52	34,964	0.48
	미국	1,797	0.89	2,053	0.72	3,542	0.73	4,049	0.63
	일본			14	0.80	6,278	0.60	14,039	0.58
	기타	991	0.32	1,079	0.33	1,283	0.65	213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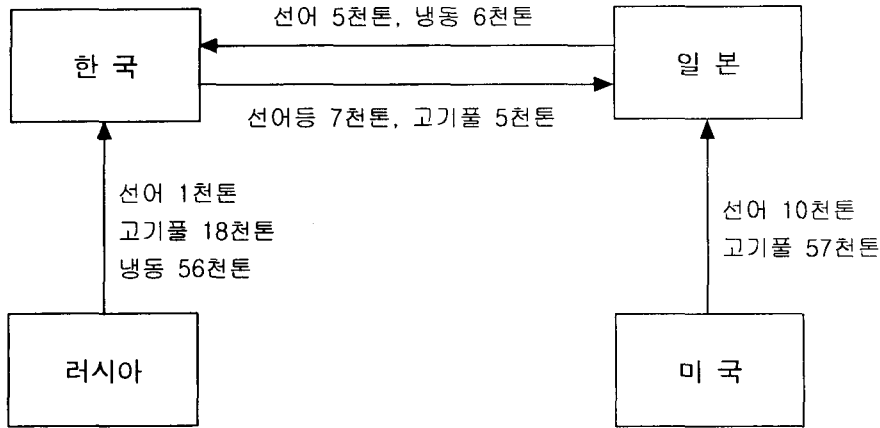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그러나 실제로는 연육을 포함한 명태무역 전체에 있어서 주요 4개국의 국제관계<그림 2>를 보면 일본의 수출은 아직 비중이 적고 미국 및 러시아에서 일본 및 한국에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무역 전체로 보면 일본의 압도적인 수입초과에는 변화가 없다⁹⁾.

일·한 양국은 200해리 체제 이행의 최종국면에 달해 있으며 1999년의 新어업협정도 이 범주에 속한다. 조기에 200해리 선언을 행하지 않았던 미국은 1999년에 연육을 일본에 5만7천톤, 한국에 1만8천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에의 수출량은 미국 명태 수출량 전체의 9할에 달하고 있다. 또 선어명태도 수출하고 있으며, 동년의 수출량은 일본이 1만톤, 한국이 866톤으로 거의 일본이 중심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0해리 규제에 의해 일본과 한국의 조업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냉동연육 및 냉동어의 수출을 증가시켜 왔다. 한국은 일찍이 일본이 경험했던 원양어업 축소의 기로에서 있으며, 관련업계가 이로 인해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9) 일본 이외의 제3국을 포함한 한국 수산물무역은 한국의 수출초과에서 수입초과로 역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수산물무역에 있어서는 일본이 수입초과국이다. 1999년에 일본의 수출액(1414억엔)중 한국은 14억엔이고 미국과 홍콩에 이어 세3위이다. 수량으로는 전년보다 급증해서 5만톤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명태는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측 수출 통계에서는 기타(3만3천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불명확하며 명태에 관해서는 한국측 통계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입에 관해서는 금액면에서는 수출의 10배, 수량으로도 4배이고 상대국별로 보면 금액면에서 4위, 수량면에서 7위이다.

명태를 둘러싼 日·韓관계



- 주1) 1999년 기준으로 작성, 단 년도에 따라 커다란 변동이 있음.
- 주2) 명태에 관한 4개국 관계를 본 것으로서 한국, 일본도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는 수입초과, 일본과 한국은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2〉 명태무역의 국제관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선어명태 수출은 1997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에는 선어 5천톤, 냉동품 6천톤이 수출되었다¹⁰⁾. 이것은 한·일 新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0년부터 한국 트롤어선의 북해도에서의 전면철수가 결정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며 따라서 동협정에 의한 한국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일본산의 수입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의 어획량의 감소와 가격의 상승은 일·한 新협정의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산이 수입되게 된 배경은 10년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산 명태는 한국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2000년까지는 한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2000년 가을시점에서 보아도 수입량이 조금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으며, 일본산 선어의 유통이 한국내의 가격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은 볼 수 없었다. 앞으로 한층 더 대량의 일본산 명태가 수출되어 한국내의 가격을 저하시켜서 생산자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가격이 하락해서 한국측의 산업에 피해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한국도 WTO 가맹국이기에 때문에 한국측에서 세이프가드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¹¹⁾.

10) 북해도 저인망 어업의 최대근거지는 Kusiro항에서는 1척이 시험적으로 선어를 수출하고 있었지만, 1999년에는 조합의 주도로 근해저인망 수선이선어수출을 본격화했다. 그 전에는 연육형태의 출하였기 때문에 선어수출을 위한 선상에서의 선별작업이 필요 없었으나, 전체 선원의 합의를 얻어 선상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포장, 스티로폼 상자 이용, 오존 살균 등을 하여 1척당 400상자를 한도로 안정출하에 노력하고 있다.

11) 세이프가드제도 발동의 한 예로서 이미 한국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이 있고, 미국에서도 농산물에 대해 발동한 예가 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발동에 있어서 중국은 당시 비가맹국인 것을 이유로 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일본은 본 발동을 중지해 중국은 자주 규제를 위한 협회에 들어갔다. 본래 WTO가맹국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그 후 가맹국이 된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는 주목되는 부분이

세이프가드제도는 긴급한 수입의 증가가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수입국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이익을 중시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도 한국측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세이프가드의 운용을 결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시장원리를 중시한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가격의 급락은 일본측의 채산성을 저하시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국 산업의 공존을 중시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¹²⁾. 200해리 체제로 이행과 新어업협정의 체결에 의해서 해양에서의 어장경합이 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역분쟁으로 어업분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해양이용과 협조의 교역을 지향할 시기이다.

참 고 문 헌

- 松浦勉・張瑛秀,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pp. 1-84.
山本忠, “韓國の漁業と漁業管理”, 世界の漁業管理下卷,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pp. 597-625.
時村宗春・大瀧英夫・金大永, 韓國の漁業, 海外漁業協力財團, 1998.
姜練實, 韓國水産業の特徴, 水産振興 374號, 1999.
小野征一郎, “韓國の水産物輸出”, 200海里體制下の漁業經濟, 農林統計協會, 1999, 124-152.
李相点, “新海洋秩序下における韓國の漁業管理とTAC制度”, 地域漁業研究, 地域漁業學會, 2000. 4, 29-44.
金秀寬, “韓國の水産物市場が進むべき方向”, 地域漁業研究, 地域漁業學會, 2000. 4, 59-73.

다. 덧붙여 중국은 2001년도에 WTO가맹국으로 될 것이고 WTO원칙에 의해 특례적인 對中특별 세이프가드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12) 이와 같은 가격의 급락이 있는 경우 일본측이 수출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의 산지대응이 아니라 산지전체의 판매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의 명태 수출에 관해서도 국내를 포함한 판매처의 조정 등이 가능한 강력한 판매조직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없이 수출량을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다.